

# 전문연 어디로 가야 하나... 전문연 제도혁신 토론회 개최



△전문연 토론회 <사진 = 김승규 기자>

지난달 31일 KAIST에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패널들과 참석한 학생들간 논의가 오갔다.

토론에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이기훈 GIST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정책센터장 ▲이창훈 DGIST 입학처장 ▲박명곤 UNIST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참여하였고, 김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소영 교수와 이기훈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례와 특혜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하였다. 전문연 제도는 특혜

가 아니라 대체복무로서의 특례임을 주장하였다. 이기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써 안보를 설명하고 전문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 발표에서, 이정재 센터장은 "과학기술인재가 국가와 개인이 원하는 만큼 잘 육성 및 활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분야에서 전문연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입학처장은 DGIST 상담 경력 개발센터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이 처장이 발표한 설문조사에는 DGIST 대학원 및 기초학부에서 각각 200여 명, 총 400여 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이 처장은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연구는 지속성이 필요한데 전문연구요원이 폐지 되면 경력 단절과 연구 능력 퇴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어떤 학생은 전문연구

요원 제도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많은 제안들을 소개했다.

박명곤 원총회장은 UNIST 대학원이 직면한 상황을 소개하며 전문연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원은 첨단 과학 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TO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힌 이후, 현재는 포항공대보다 30% 낮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인다. UNIST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과학기술원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광휘 기자 kanghul@dgist.ac.kr  
김승규 기자 seunggyu@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디지스트신문 인터넷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중을 사로잡는 3분...우수찬 학생 페임랩 본선 진출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은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DGIST 학생들이 가진 훌륭한 과학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과의 소통에 도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될 페임랩 코리아에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9 페임랩 코리아(FameLab Korea)'에서 TOP10에 오르며 6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위촉된 우수찬 학생('16)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꿈꾸는 DGIST 학생을 위한 격려의 말을 남겼다.



△발표하는 우수찬 학생 <제공 = 우수찬 학생>

페임랩(FameLab)은 2005년 영국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늘날 33개국 5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다. ▲케시 사익스(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과학사회학 교수)와 ▲프랭크 버넷(전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 감독,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이 젊은 과학자 소개를 목적으로 대회를 기획했다. 두 교수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에서 영감을 얻어 화려한 무대, 스타 심사위원 3명, 대중이 참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대

회를 기획했고 그것이 오늘날 페임랩 대회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첫 '페임랩 코리아' 개막식을 열었다. 페임랩 코리아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발표대신 말과 몸동작, 소품만을 이용해 3분 동안 과학지식을 설명하는 발표대회다. 매년 개최되는 페임랩 코리아는 서류심사 후, 두 번의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0인을 선발한다. 10인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대상 수상자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는 국제 대회 참관 기회를 얻는다.

조윤성 기자 cdh1347@  
배현주 기자 bhjoo55@

# 여름방학에 뭐하지? 국토기행은 어떨까?

이번 여름방학에도 '테마 국토기행'과 '명사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찾아온다. 6월 중 프로그램 모집이 공고된다. 6월 말에 참여자를 선정하여 7~8월 중에 4~6인으로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다녀오면 된다. 본 프로그램은 '리더십프로그램위원회'에서 기획 및 주최하여 '상담경력개발센터'가 주관한다. 예상 선정팀은 7~8팀 정도이며, 1인당 예상 지원 경비는 작년과 비슷한 내일로 티켓 5일권(작년 기준 6만원)에 활동비 5만원, 숙박비 5만원이다.

\*지원 꿀팁이 있다면?  
친구들과의 단순 친목, 먹방 여행, 힐링 여행 No! 각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 또는 역사와 연관된 여행 Yes!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있는 명사 인터뷰가 유리하다!

강민지 기자  
mangojuice@



<우수찬 학생 발표 보기 (1시간 3분부터)>

# 선관위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지만 기존 세척상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지해야 부원이 선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1주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이상 그날 투표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늘 투표에서 부장이 2일 모두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건의를 받아 위와 같은 개선의견에 대해 다른 선관위원과 논의결과, 위임장을 이용해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결정근거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회장이 동아리 회원의 의견을 모아 투표를 할 것이기에, 회장이 동아리 회원에게 투표권한을 위임해 그 결정을 투표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하에, 투표기간동안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아리 회장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 서명을 기입하고, 대리인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 서명을 기입한 후, "본 동아리 회장 000은 대리인 000에게 00동아리의 2019년도 동아리연합회장단 신임 투표권을 위임함" 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해 작성 한 뒤,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동아리 회장과 대리인은 둘 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논란이 된 공지 일부 <선관위 페이스북 캡처>

지난 5월 22일, 2019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회) 회장단 선거 결과 기초학부 박준용 학생(18), 이선규 학생(18)이 각각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DGIST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 운용에 많은 학생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첫 동연회 선거 공고가 나온 것은 지난 5월 2일이었었다. 당시 학부생에게 메일로 공지된 바에 따르면 선거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5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동연회 회장단 선거의 일정을 별도의 공지 없이 바꾼 것이며, 이러한

공지 역시 실제 선거 예정일이 지난 5월 20일로 선거 하루 전날에 이루어졌다.

또한 투표 장소 역시 투표 1주일 전에는 공지되어야 하나, 이 역시 5월 20일, 투표 전날에 공지된 것으로 DNA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투표권 위임에 대한 세척 해석 논란이다. 지난 21일, 선거 당일, 선관위는 투표권 위임 방법과 조건, 그리고 세척 해석 근거를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선관위 세척 제4조 3항에 따르면, 동아리 부장이 투표가 불가능할 시 부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이때 선거일 1주일 전까지 미리 공지된 경우에만 부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공지에서, 선관위는 세척 해석을 달리하여 선거 당일, 동아리장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리 회장과 위임을 받는 사람이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많

은 학생들이 세척 해석과 결정이 선거 당일에 공지된 점과, 투표자와 위임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만 19세로 제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위임장을 사용한 선거 조치를 철회하였고, 현재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 5월 23일 동연회 회장단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세척 11장 65조에 의거, 당선 공고 후 72시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 1건의 이의제기 후 뒤늦게 26일까지로 이의 제기 기간을 공지하였다.

29일 메일을 통해 선관위 명의의 사과문을 보냈다. 사과문에는 학생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한 답변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

# 페임랩 본선 진출 우수찬 학생 인터뷰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오대주, 박선희 아들이자 16학번 기초학부생 우수찬입니다. 이번학기 졸업 예정으로 2019 페임랩 코리아 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위촉되었습니다. 평범한 DGIST 학생입니다. 신기한 도전을 한 DGIST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상 소재인 벚꽃을 활용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벚꽃이 봄에만 피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생각이 벚꽃은 왜 봄에만 피는 걸까? 어떻게 계절을 아는 걸까? 벚꽃에서 나아가 모든 식물이 어떻게 계절을 알고 꽃을 피우는 걸까 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식물이 태양열을 인식해서 개화하는 원리를 공부했고, 해당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Q. '식물이 어떻게 계절을 알고 꽃이 필까?'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준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는가?

- 주제 선정을 할 때에도 두 가지를 고려했다. 첫 번째는 저의 관심사다. 어렸을 때,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답했다.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행복이 삶의 목표다. 그런데, 저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의 행복이 중요하고, 나아가다 보니 인류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전 세계에 식량문제, 물 부족 문제 등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식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는 대중의 관심사를 고려했다. 어려운 과학 내용은 쉽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일상에서부터 공감하기 쉬운 소재를 이용해 설명하려 노력했다. 대중들에게 과학이 어렵지 않은 것이고, 일상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것이 과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벚꽃을 소재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맛집 사장님 입장에서 요리를 제공하는 비유법을 사용했다.

Q.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외국에서는 과학 전공자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이미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강연, 신문을 통해 본인의 연구를 효과적이고 쉽게 소개하는 일이 대중화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다. 언론활동을 많이 하는 과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 본인의 연구를 소개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은 중요하고 칭찬해야 마땅한 일이다. 저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찰나의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그런 찰나의 순간을 '계기'라 부른다. 계기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현상이지만 그 계기를 통해 과학에 관심 없던 사람도 대단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즉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 계기와 순간을 만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꾸준히 이루어진다



△우수찬 학생 (사진 = 배현주 기자)

면 과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Q. 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는 DGIST 학생들에게 추후 페임랩 코리아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달라.

- 페임랩 대회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달라. 페임랩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큰 대회이다. 교통비 지원도 안 되고, 대회 준비가 시험기간과 겹치는 등 힘들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페임랩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다. 여러분의 능력은 엄청나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 사실 저도 이번 페임랩이 첫 도전이다. 앞으로 꾸준히 도전하고 실패할 예정이다.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다.

제 사소한 바람이 있다면, DGIST에서 페임랩 지역예선이 개최되는 것이다. 경상지역 예선은 올해 UNIST, 작년엔 POSTECH에서 진행됐다. 아직 DGIST에서는 지역예선이 개최된

적 없다. 내년 지역 예선은 DGIST에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DGIST학생들이 지역예선에 쉽게 참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이뤄낸 성과보다는 페임랩 대회 자체의 매력을 강조하던 우수찬 학생은 DGIST학생들이 다양한 교외 활동에 더 관심과 열정을 가졌으면 한다고 응원을 전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던 우수찬 학생은 스스로, 숭수수범을 보인 셈이다.

조윤성 기자 cdh1347@  
배현주 기자 bhjoo55@

# [르포] 2019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우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 우리와 같기에 모두 다른 성소수자들

###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퀴어퍼레이드(이하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총 74개의 부스가 운영되었고, 성소수자 및 앨라이 약 7만 명(주최측 추산) 축제에 참여했다. 행사는 혐오세력과 큰 충돌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행사는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8시간 동안 이어졌다. 또한, 올해 퍼레이드는 4.6km의 코스를 총 11대의 트럭과 퀴어 라이더들이 함께해 역대 최대의 규모를 알렸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 간 연대의 장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보편 인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축제의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가 네 명이 스크린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축제의 내용을 전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의 부스에서는 교차점에 위치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가시화와 소수자 간의 연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국내 단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다양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과 대표부에서도 부스를 운영했다. 이들은 각각 나라의 성소수자 인권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퍼레이드 경로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프라이드 플래그를 전시

함으로써 연대를 표명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한 셈이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부스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사회적소수자와 함께하는 성공회 교회들 연합 역시 참가하여 각자의 종교로 성소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담장 너머에서 개신교 측의 혐오 세력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는 이중적인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서울 광장을 둘러싼 외부에서 들려오는 성소수자 반대 집회의 목소리는 축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그들의 발언에 함성으로 응답했고, 그들의 구호에 더 큰 목소리로 응답했다. 환영 무대 사회자는 위트 있는 진행으로 성소수자 반대 집회를 비판하였고, 이에 사람들은 큰 용기를 얻기도 했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한 사람은 “예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들이 혐오를 중단하기를 바랐으나 최근에는 이들이 불쌍하다” 고 말했다.

행진은 레인보우 라이더스의 모터바이크를 시작으로 총 11대의 트럭과 각 트럭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깃발을 높게 드는 한편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힘차게 4.6km의



△광화문을 향해 가는 퍼레이드 행렬 (사진 = 오서주 기자)

거리를 무지개의 물결로 가득 채웠다. 특히 이번 행진은 처음으로 퍼레이드가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진 행사였다. 행렬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앞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큰소리로 본 행사의 슬로건을 외치며 성소수자 가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날 행사는 행진에 참여한 인원뿐만 아니라 밖에서 행진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완성되었다. 행진 경로의 중간중간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자리해 있었고,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노총 측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이에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호로 응답하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퀴어문화축제가 갖는 의미를 당사자들에게 물어봤다. 퀴어문화축제를 3년째 참석하고 있다고 밝힌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 행사의

문화 자체가 발전하고 있고, 이는 곧 성소수자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시화를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 중 하나는 ‘우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인데 이를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보여주는 느낌이 강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사회의 어디에서도 귀속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도 알렸다.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와 같기 때문에 모두 다른 모든 성소수자들이 다름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서주 기자 sjice@

## [DNA&책] 역사의 역사

### 역사가와 역사학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한국사를 배운 기억은 있을 것이다.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 못 해도 임진왜란, 강화도 조약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짜 맞추어 나열할 것이다. 다시 묻는다. 역사가와 역사가의 차이를 아는가? 역사가는 분석하고 연구하며 비평한다. 하지만 역사가는 창작한다. ‘역사의 역사’는 역사가가 아닌 역사가를 다루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본 사람은 많다. 사람들은 사기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는다. 하지만 사마천이 ‘사기’에 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여러 시대 역사가들의 역사서를 소개하며 역사가에 관해 이야기 한다.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분명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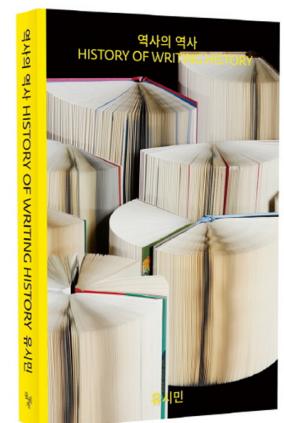
### 그그 아버지 뭐하시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 ‘역사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서구 지식인들은 헤로도토스에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안겨줬다. 헤로도토스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다. 그의 저서 ‘역사’에 나오는 마라톤 평원 전투는 헤로도토스의 이야기 실력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헤로도토스와 같이 서구 역사의 선구자 중 하나인 투키디데스는 ‘역사’를 대중의 취미에 영합하는 일회용 들을 거리로 취급했다. 그는 청중의 주목보다 사실을 더 중요시했다.

마라톤 평원 전투부터 사피엔스의 미래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소개로 시작되는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다양한 시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했다. 사마천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제도와 문화의

역사를 다뤘다. 이븐 할둔은 국가의 틀을 벗어나 인류사에 접근했다. 랑케는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보여줬다. 마르크스는 사회 발전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법칙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외친 민족주의 역사가도 있었다. 에드워드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가와 지식인이 되어 역사에 대해 말했다. 슈팽글러와 토인비 그리고 헌팅턴은 문명의 역사를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와 하라리는 역사와 과학을 결합했다.

저자는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역사 서술에 대해 분석한다. 역사의 서술이라는 주제가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의 사례들은 분명 도움이 된다. 역사는 학문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자신이 대상을 바라볼 시각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역사의 역사 (사진 = 돌베게)

### 두꺼운 여행 가이드북

저자는 이 책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한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책으로 미리 해 본 패키지여행이 헤로도토스부터 하라리까지 역사의 역사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행을 가고 싶지만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당신, 혹시 역사의 역사를 여행할 생각 있는가? 그렇다면 꼭 이 책을 읽기 바란다.

강광휘 기자 kanghul@

# [문화계절] 여름보다 뜨거운 이야기, 뮤지컬 '라이온킹'

계승에 밀린 적장자가 성장한 뒤에 다시 왕위를 잇는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클리셰(cliché)다. 그럼에도 뮤지컬 <라이온 킹>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프리카 문화의 아름다움과 컷가에 맴도는 아름다운 음악 때문일 것이다.

지난 5월 26일, 뮤지컬 <라이온 킹>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 5월 26일자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인터내셔널 투어는 미국 브로드웨이 <라이온 킹> 뮤지컬 초연 2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됐다.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공연 중에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한 라이온 킹 뮤지컬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남겼다. 기자는 4월 28일에 부산 공연을 관람했다.

<라이온 킹> 오프닝은 귀에 익숙한 'Circle of Life'가 공연장을 울리면서 시작한다. 무대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공연장 통로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뺏뺏이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미어캣이 된다. 관객을 가로질러 무대에 진입한 야생동물들은 심바의 탄생을 축하하며 무대위에 올라 기쁨을 나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여명 역시 걷히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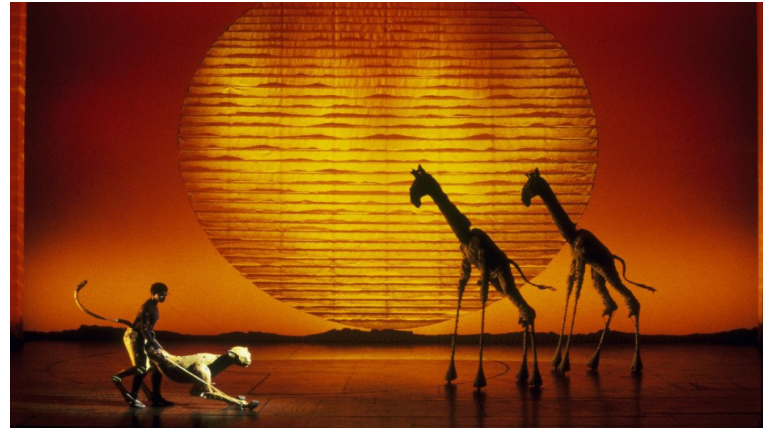
한국의 문화를 고려한 틈새 자막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주요한 볼거리 중 하나였다. "국제시장에서 떼 온 커튼 같네", "에버랜드에 팔지 마세요", "대박", "코요사..." 등의 대사는 적재적소에 쓰이면서 관객들에게 뜻밖의 웃음을 선사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한국어 애드리브는 <라이온 킹> 제작진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공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오리지널 <라이온 킹> 뮤지컬은 지

난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존스홉킨스로 FGLP를 떠나는 학생들은 볼티모어 인근 도시인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다. FGLP를 존스홉킨스로 떠나지 않는 학생들도 7월 17일에 개봉하는

실사 영화 <라이온 킹>을 통해 뮤지컬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올 여름, 대구의 뜨거운 더위를 사바나보다 뜨거운 <라이온 킹> 이야기로 쫓아보는 건 어떨까.

배현주 기자 bhjoo55@



△라이온킹의 한 장면 (제공 = 라이온 킹 홈페이지)

## [오피니언] Why so serious?

### 제1차 학생총회 결국 무산 ...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사유하고 있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08년작 <다크나이트>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빌런인 조커(히스 레저 역)가 나온다. 뛰어난 완력도 기술도 없는 이 빌런은 특유의 광기와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로 고담 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다. 그는 전무후무한 명대사 "Why so serious?"를 남긴다. 그는 온갖 심각한 상황에서 왜 그리 심각해냐고 묻는다. 사람 코앞에 칼을 들이대며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한 채로 죽는다. 영화를 보면서 저 기약 없는 물음표에 대답이 없다는 게 거슬렸다. (물론 조커가 시간을 안 주지만.)

지난 16일 제1차 DGIST 융복합대학 학생총회가 무산됐다. 의사정족수가 300여명인데, 막상 참석한 인원은 100명이 겨우 넘는다. 잠시 들려 카드를 등록한 사람만 그러하니, 계속 앉아있었던 사람은 더 적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학생총회 실패사에 또 한 페이지를 추가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대수롭지 않게 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보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법이다. 굳이 그 십자가를 저울에 매달아가며 무게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시험과 과제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어쩌면 총회에 온 사람들은 DGIST에서 때마침 한가한 100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희생정신이 어찌구, 공동체와 의무가 어찌구 하는 낱아빠진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야기하고픈 건 자율성의 문제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 십자가는 과연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그저 타인의 뜻대로 떠맡은 십자가가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면 꽤 슬픈 일이다. 대학에 온 목적이 뛰어난 학식과 성취를 쌓아 졸업 후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는 것인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에게 학생 자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그 시간에 문제 하나, 책 한 장 더 보는 게 이롭다. 그들에게까지 학생총회 참석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그 부담을 나누어 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만약 전교생의 과반이 위와 같은 실존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학생총회는 분명 구시대적인 것이고 사라져야 옳다. 21세기 협동이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고, 학생총회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말?"이라고 되묻고 싶다.

과제, 시험, 학점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직면한 문제이다. 학생 자치 등 각종 사회적 문제는 비교적 조금 멀

리 있다. 경중이 아니라 거리의 차이이다. 후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들은 동일 선상에서 자유경쟁이 불가능하다. 시장 좌판에 전부 깔아놓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필자는 혹시 이 공동체의 문제가 개인에게 다다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기울어진 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스런 마음이 든다.

척박한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가 걱정스럽다. 총회에 와준 사람, 못 온 사람 모두가 그러하다. 와준 이들 중 과연 얼마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택했으며, 못 온 사람 중 얼마가 합리적으로 총회를 포기했을까. 그저 어렵 뜻이 짐작할 뿐이다. 같은 이유로 80년대 운동권 사회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시대적 압력과 무관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했을까. 이 사회는 '개인의 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데 꾸준히 실패하고 있다. 오늘날 학생총회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찾는 게 비약은 아닐 테다. 학생총회가 애초에 필요한지와 당신이 학생총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에, 성공적인 개회는 멀기만 하다.

어느 날 조커가 와서 "Why so serious?"라고 물을 때 당황하지 말자.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고민하고 인생에 회한을 느끼면 늦다. 매순간 충실히 사유하여 자신의 십자가에 담당해야 한다. 그게 곧 Carpe Diem이며, 조커를 당황시킬 방법이다.

"당신은 왜 그토록 시험과 과제에 진지한가요?"

"당신은 왜 그토록 학생 자치에 진지한가요?"

최원석 부총학생회장

디지스트신문 DNA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임명

- 정기자 김준호 ('18)
- 수습 기자 조윤성 ('19)
- 학생자문위원 김근우 ('16)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조커 <영화 '다크나이트' 캡처>